

# 2007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상

## 대진농장 - 이희철 농가

서울지역본부안홍호대리



배진농장이희철대표

경기도 연천군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진농장(대표 이희철)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주최한 2007년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표창 돼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농가다. 사육규모는 1천5백두로 그리 크지 않지만 1등급 이상 출현율(기간: 2007년 7월 1일~12월 31일)은 84.5%, 규격등급 B등급 이상은 80.8%로 동기간 전국평균 64.1%, 66%에 비해 내실 있는 품질 경쟁력을 갖춘 농가이다. 또한 축산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몇 해 전부터 사양관리에 참여하면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기분에 충실하는 것이 경쟁력

이희철 대표가 양돈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분에 충실하다는 신념으로 지켜온 사양관리 방법이다. 사육단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자 육성돈과 비육돈을 절대 밀사시키지 않고 친밀하게 돈군을 관찰하여 일령, 체중별로 성장단계별 사료프로그램을 준수한다. 특히 이희철씨 부인이 항상 꼼꼼하게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분만을 마친 모돈은 반드시 일으켜 물을 섭취하도록 노력한다. 분만 후 1주일만은 건강한 자돈을 만들기 위한 이유를 위해 모돈이 건강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또한 대진농장은 교배적기를 정확히 포착하여 종부를 실시한 후 배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온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산지수가 많다. 이유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대모돈을 활용하는데, 초기에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 포유자돈은 2~3일간 초유급여를 시킨 후 포유모돈당 포유자돈 10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모돈에게 보낸다. 2주령 자돈 중 체중이 큰 자돈은 이유를 실시하고 1주령 이내의 자돈은 양자보내기를 실시한다. 따라서 포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돈 회전율은 다소 낮아도 위축돈 감소효과가 탁월하여 이유두수 비율이 높다.



### 향후 방향

대진농장은 예전에 비해 사정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식품가격의 안정화란 명분아래 상승하는 생산비를 농가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기분에 충실하며 경쟁할 계획이다.